

# “도내 중기 성장에 어려움 없도록”

우범기 정무부지사  
선도기업 현장행정 추진  
김제 소재 ‘두원메디텍’  
‘다복술식품’ 찾아  
기업 애로사항 청취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2일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김제지역 중소기업인 ‘두원메디텍’을 찾은 가운데 관계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으로 김제지역 중소기업인 ‘두원메디텍’과 ‘다복술식품’을 지난 12일 찾았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의 우수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생산공정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원메디텍은 의료기기 전문기업이자 전북도 선도기업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용 주사기 납품 업체로 선정돼 오는 7월 말까지 27억원 상당의 주사기 2,750만 개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서효석 두원메디텍 대표는 “납품 기일에 맞춰 전 직원이 동원되고 있는 상태로 생산 인력 부족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소년여형(LSD) 주사기로 더 많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다복술식품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회원사이다. 최근 공장을 확장 이전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영여건 속에서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고운주 대표는 “HACCP 인증 절차 진행 중인데, 서류 작업이 복잡해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

류 간소화’를 건의했고, “HACCP 인증을 받으면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식품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은 “이 자리에 함께해 기쁘다”며 “앞으로 여성 대표들이 협력해 서로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의 노력이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도내에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기업 유치 활동 ‘바쁘다 바빠’

민주 김수홍 의원, 패션주얼리연구센터 시작으로  
익산 소재 두산퓨얼셀·동우화인켄·하림 등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의 적극적인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12일 이틀에 걸쳐 익산에 위치한 기업과 연구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익산 소재 기업의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자리로써 익산상의 김원요 회장과 익산시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먼저, 김수홍 의원은 익산시 제3산단에 위치한 패션주얼리연구개발센터를 찾았다. 김 의원은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의 인프라 구축 현황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이가 전국 최고의 보석단지의 명성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키워나갈 주얼리시터 익산”을 선언하며 익산이 주얼리의 메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내 소재 두산퓨얼셀, 동우화인켄, 만도, 하림산업 등 4곳의 기업을 방문했다. 김수홍 의원은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익산시 투자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교환했다. 특히, 첨단 제조업 기반을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이 익산의 도전과제임을 언급하며 ‘기업하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각 기업을 방문한 자리마다 김 의원은 ‘익산 투자유치 영업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기업들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홍 의원은 “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느낀 점은 그동안 익산, 나아가 전북민의 투자유치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이라며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익산을 기업이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최훈 행정부지사 “백신접종도 현장이 답”

정읍지역 예방접종센터 예정지 실내체육관 점검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인 최훈 행정부지사가 지난 12일 정읍지역 예방접종센터 예정지인 실내체육관 점검에 나섰다. 최훈 부지사는 이날 정읍시,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과 함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될 정읍실내체육관의 입·출구 분리 여부, 자가 발전시설, 냉난방시설, 환기 시설 구비 여부 등 접종센터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전력공급, 소방설비, 질서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최 부지사가 점검에 나선 정읍 실내체육관에서는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을 정읍시 94,800여 명의 대상자 중 50% 이상 시민이 접종하게 된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2차례 걸쳐 접종을 해야해 보다 엄격한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 /유호상 기자

## 정읍·고창·부안 AI 발생지역 8개 방역대 해제

전북도, 가축방역상황실·거점소독시설은 지속 운영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정읍·고창·부안 지역 8개 방역대가 해제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해당 방역대 내 닭·오리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해제 됐으며, 입식을 원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입식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1월 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 이후 105일 만이다. 다만,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동제한 중인 2개 방역대(고창1, 부안1)는 오는 17일 이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일부 지역 방역대는 해제됐지만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과 타 지역에서 고병

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25개소)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135대)를 총 동원해 AI 발생지역 주변과 가금농가 인근 철새도래지, 소화천, 저수지 등을 AI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하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대책 절실”

황의탁 도의원 “스프링클러 없어 전소 피할 수 없어”



전북도의회 황의탁(행정자치위원회, 무주군)의원이 화재에 취약한 도내 목조문화재와 사찰 등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탁 의원은 “천년 역사를 간직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기본적인 방재시설인 스프링클러조차 없어 전소를 피할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도내에 있는 국가와 도가 지정된 목조문화재 205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381곳 사찰 역시 화재 예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언제든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도내 목조문화재 및 사찰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도내 목조문화재와 사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소방시설 설치지원, 합동점검, 소방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큰 목조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